

동아시아 문명과 서적 분류의 역사에 대하여

경상대학교 한문학과

장 원 철

1. 주지하다시피 과거 역사상에 나타나는 인간의 지적인 행위는 그 성과의 대부분이 서적의 형태로 후세에 전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동아시아에 있어서 중국 문명의 4대 발명 - 종이와 인쇄술이 이에 포함된다 -에서 그 물질적 토대가 구축된 이래 보존할 것인가의 문제는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한자 문명권에 있어 어느 시대에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사상·학술적 문제의 하나로 끊임없이 존재해 왔다고 하겠다. 따라서 중국에서 비롯된 이른바 한적(漢籍) 분류의 방법은 그 자체로 중국, 더 나아가 한국·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 있어서의 시대마다 독자적인 세계관과 그 학문적 방법의 궤적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경우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러한 한적 분류법의 변천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일은 단순한 회고 취미의 차원이 아니라 향후의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새로이 구축되어야 할 동아시아의 지식·정보 사회의 존재 양상과 그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역사적 사계의 검토라고 할 수 있다.

2. 구분 기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중국의 전 역사를 대체로 고대·중세·근세로 3분하여 보고자 한

다. 요컨대 하(夏)·은(殷)·주(周) 3대로부터 후한(後漢)의 A.D. 세기 초까지의 시기를 고대(古代)로 볼 수 있는데 이 시기의 문화적 특징은 중국 독자의 문화가 형성·발전하는 한편으로 제자백가와 초기 유학사상이 형성되는 경학(經學)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유명한 삼국(三國) 시대로부터 당(唐)이 안록산의 반란으로 쇠퇴·멸망하고 마는 A.D. 9세기 말까지의 시대를 중세(中世)로 볼 수 있는데 이 시기는 외부 이민족의 세력이 빈번히 중국을 침략·지배하였고 그 결과로 외래문화의 영향이 매우 두드러졌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발생한 유교와 노장사상 이외에도 외래 사상으로서의 불교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이 그 좋은 예라고 하겠다. 이후 오대(五代)와 송(宋)·원(元)·명(明)을 거쳐 청(淸)이 아편전쟁을 거쳐 멸망하고 마는 19세기까지의 시기를 근세(近世)라고 본다면 이 시기는 중세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시금 중국 고유의 사상과 문화가 부활하고 새로운 진보를 이루었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곧 이전 시대의 가장 강력한 사상이었던 불교에 의해 새로이 재해석된 유학사상인 송학(성리학)이 사상사를 지배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작용과 반작용의 역학이 이 시기를 내내 관통하면서 지배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 구분은 문학사의 측면에서도 3시기의 특징을 서로 뚜렷이 구별해 주고 있다. 고대의 문학이 대체로 정치와 윤리를 위한 언설(言說)로 일관되었던 데에 비하여 중세 시대는 그에 대한 반동으로 인간의 감정을 배려하는 서정시와 변려문(駢麗文)이 문학사의 주류를 이루어 왔다. 이윽고 근세에 접어들게 되면 이 시기가 성리학이라는 철학의 시기였던 관계로 서정시에 대해 논리를 중시하는 산문 쪽으로 문학사의 주역이 바뀌고 더 나아가 허구의 문학 형식인 희곡이나 소설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렇듯 역사·철학·문학 등의 시대 구분에 있어서 뚜렷한 경계를 표시하는 시대인 한(漢)·당(唐)·청(淸)이 서적 분류의 역사에 있어서도 비슷한 역할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라고 하겠다. 곧 한적 분류의 학문인 목록학(目錄學)의 대표적 저작이라고 할 한(漢)의 『칠략(七略)』, 당(唐)의 『수서(隋書)』 「경적지(經籍志)」, 청(淸)의 『사고전서총목(四庫全書叢目)』이 그것인데, 이들 저작의 출현이 대체로 앞서의 시대 구분과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문명에 있어서 서적 분류의 목록학의 역사는 학술 사상 전체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하면서 진행되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렇듯 획기적 의미를 지니는 역사의 전환기에는 하나의 공통적 특성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대체로 기존의 세력이 몰락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사회계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점이다. 우선 고대의 종결점이라고 할 한(漢代)에는 지역의 호족(豪族) 세력이

강대해지면서 농민의 계층 분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기존의 국가통치의 기반이었던 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왔던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유명한 한무제(漢武帝)의 시기(B.C. 140~87)에 이미 그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여서 유향(劉向)·유흠(劉歆) 부자가 도서의 정리·구분에 착수하였던 성제(成帝)·애제(哀帝)의 시기(B.C. 32~1)에 이르러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대세가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시기에 유향 부자는 자기 시대 이전의 학문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는데 그러한 역사적 고찰의 근거는 당연히 무제 시대에 국가의 기본 이념으로 자리 잡았었던 유가(儒家)의 사상이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유향 부자는 자신들과 같은 지식인들이 학문으로 익혀야 할 분야인 '육예(六藝)·제자(諸子)·시부(詩賦)'의 '학(學)'의 계열과 특수한 전문 기술 분야라고 할 '병서(兵書)·술수(術數)·방기(方技)'의 '술(術)'의 두 가지 계열을 중심으로 자기 시대 이전의 '학술(學術)'을 『칠략』이라는 목록학의 저술로 정리해 내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 역사에서 가장 국제적인 문화기를 형성하였던 당(唐) 왕조 전후의 중세 시대에 그 사회적 특성이었던 귀족제(貴族制)가 점차 동요하면서 이른바 신흥 지주층이 역사의 새로운 계층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가 다름 아닌 측천무후(則天武后)의 통치기(A.D. 685~704)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세 시대의 학문과 문화를 총체적으로 정리한 『수서』 「경적지(經籍志)」가 바로 그 측천무후가 황후의 지위에 오른 다음해에 편찬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역사적 우연만은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윽고 이러한 「경적지」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삼국 시대의 위(魏)나라(A.D. 220~265)에서 비롯된 경(經)·사(史)·자(子)·집(集)의 이른바 사부(四部) 분류법이 도서 분류의 정통적인 방법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중세 시대에 앞서 고대의 학술을 체계화하여 정리하였던 『칠략』의 6부 분류법이 퇴장하고 새로이 「경적지」의 4부 분류법이 등장해야만 했던 역사적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가장 주된 이유는 다름 아닌 사학(史學)을 독립적으로 다루는 '사부(史部)'의 창설에 있었다는 점에 새삼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새로운 도서 분류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은 다름 아닌 사학(史學)을 독립적으로 다루는 '사부(史部)'의 창설에 있었다는 점에 새삼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새로운 도서 분류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은 다름 아닌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를 둘러싸고 벌어진 오랜 학문적 논쟁의 결과였던 것이다.

동아시아의 문명에 있어서 최초의 본격 역사서라고 할 『사기』는 주지하다시피 기전체(紀傳體)라는 독창적인 형식 속에 매우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새로운 책이라는 점에서 고대 이래로 도서 분류법에 있어서 항상 골칫거리로 존재하였다. 앞서 『칠략』을 편찬하였던 유항 부자의 경우에도 자신들의 6부 도서 분류법상 어느 체계에도 속하지 않는 『사기』라는 책에 대해 골머리를 앓다가 결국 유가의 역사서라 할 『춘추(春秋)』의 하위 범주로 분류하고 마는 편법을 취했다는 사실이 그러한 고심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

는 누가 보아도 유가 경전으로서의 『춘추』라는 책과 사마천의 『사기』는 같은 역사서이기는 하지만 그 체제나 성격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책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중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기』의 뒤를 이은 역사서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사학'이 시대를 주도하는 하나의 학문 분야로 독립하게 되자 사학을 수용하지 못했던 기존의 6부 분류법을 대신하여 사학을 독립된 하나의 분야로 설정한 4부 분류법이 새로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윽고 『수서』 「경적지」에서 확립된 4부 분류법은 이후 동아시아 문명권에 있어서 분류법의 역사적 결산이 다름 아닌 청(淸)의 건륭제(乾隆帝) 시대에 이루어졌던 『사고전서총목(四庫全書叢目)』이었다. 건륭 37년(1772)에 시작되어 약 10년간에 걸쳐 천하의 모든 서적을 수집·정리할 목적으로 시행·편찬되었던 이 사업의 성과로 사고전서(四庫全書)에 수록된 서적의 총수는 본문을 수록한 '저록(著錄)'의 경우 3,457부(部) 79,070권, 서명만을 기록한 존목(存目)의 경우가 6,766부의 93,556권에 이르렀다. 질량 모두에 있어 인류 역사상 가장 방대한 규모의 서적 분류·편찬 사업이 이루어졌던 이 시기는 그러나 한편으로 역사가 전근대의 시기를 마감하고서 새로이 근대로 나아가는 조짐이 나타나는 역사적 전환기였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역사에 있어 최고의 번영기라 할 이 시기에 이미 쇠락을 향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시대에 쓰인 유명한 소설 『홍루몽』 등에서도 문학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바로 그 『홍루몽』의

자인 조설근(曹雪芹)이 죽고 난 20년 후에 『사고전서총목』의 편찬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윽고 1840년 일어난 아편전쟁의 결과 1842년에 중국이 영국에 항복함으로써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역사는 전근대를 청산하고 본격적인 근대의 시기로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변화와 함께 이 시기를 전후하여 유입되기 시작한 서양문명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4부 분류법 체계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새로운 서적들이 저작·출현하기 시작함으로써 8세기 이래로 동아시아 문명의 기본적인 도서분류법으로 부동의 위치를 차지해 오던 4부 분류법의 그 역사적 효력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 결과로 새로이 등장하였던 것이 주지하다시피 미국의 존 듀이의 십진 분류법(DDC)을 응용한 각종 십진 도서 분류법이었으며 그러한 경향은 현재까지도 유효하게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범범하게 살펴보았듯이 중국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 받은 도서 분류·정리 사업이 대체로 고대로부터 중세, 중세로부터 근세, 근세로부터 근대에 이르는 역사적 전환기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도 지적했듯이 단순한 역사적 우연의 일치로 보기도 보다는 이들 새로운 도서 분류·정리 사업의 추진자들이 자기 시대가 역사적 전환기임을 어느 정도 예감하고서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 모색의 결과로 나타났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곧 이들은 그러한 모색의 구체적인 실현 방법으로 우선 자기 시대 이전의 학문 문화유산을 총괄적으로 정리·체계화해야 할 역사적 필요성을 느

꼈던 것이고, 역사적 전환기에 있어서의 이러한 획기적인 목록서의 출현은 그러한 역사적 필요성에서 유래되는 일련의 현상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요컨대 『칠략』은 고대의, 『수서』 「경적지」는 중세의, 『사고전서총목제요』는 근세의 학술 문화를 이들 시기가 산출한 도서의 분류·정리 작업을 통하여 체계화함으로써 자기 시대 이전의 역사 전체를 체계화하는 동시에 다가오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고 했던 것이다. 아울러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역사적 전환기에 이르게 되면 대체로 앞서 사마천의 『사기』의 경우처럼 기존의 체계로는 분류되지 않은 새로운 문화적 현상들이 어김없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기존의 분류 체계 안에서는 흔히 ‘잡(雜)hetero’이라는 주변적 범주로 멀리 내지 차별 받았던 이러한 새로운 문화적 현상들은 그러나 그 자체가 다가올 역사적 변화를 예감케 하면서 기존의 인식 양상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혁명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새삼 역사적으로 주목해야만 할 것이다.

3. 동아시아 문명권에 있어 서구 제국의 침략으로 근대가 시작된 이후로 다시금 새로운 역사적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는 이즈음에 과거 전통적 목록학이 담당하였던 문화사적 역할은 이제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문헌정보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1887년 미국에서 도서관학(Library Science)이라는 학문으로 출발하여 현재에는 대체로 문헌정보학(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으로

불리는 이러한 서구 이식의 학문 체계는 그러나 요사이 들어와 안팎으로 근본적인 도전과 시련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그러한 시련과 도전의 극복이 단순한 학문 체계상의 소소한 변화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역사적 전환기에 접어든 우리 시대는 과거의 어느 역사적 전환기보다도 격렬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고, 그 결과 다가올 미래의 양상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의 불가예측성 속에 놓여 있다는 점이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와 해결을 한층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선 오늘날의 도서관과 문헌정보학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만을 지적해 본다면 지식 정보의 존재 양상이 과거와 전혀 다르게 변화한다는 점과 인터넷을 비롯한 디지털 정보화의 새로운 물질이 지식정보의 생산·유통·저장의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과거 도서 일변도로만 존재하던 지식과 정보는 오늘날 도서(4%)·신문(5%)·잡지(6%)의 전통적 활자 매체 이외에도 영화(7%)·TV 영상물(10%)·음반(5%)·라디오(7%)·인터넷(18%) 등과 같은 다양한 존재 방식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근본적인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가의 여부가 오늘날의 도서관과 문헌정보학이 직면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정보화가 요사이 새삼스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이러한 문제에 가장 총체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그 원인이 있다고 해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선진 여러 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역사적 전환기에 대처하는 방식이 대체로 과거의 지식 정보 문화에 대한 전체적이고도 체계적인 준비를 행하는 하나의 축과 디지털 정보화에 대비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도서관을 비롯한 물적인 프라의 구축이라는 두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의 좋은 참고가 된다고 하겠다. 우선 21세기를 맞이하여 과거 시대의 활자 도서 문화에 대한 총체적 평가와 결산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유럽 지역에서 특히 프랑스의 경우에 『프랑스출판사』 전5권과 『프랑스도서관사』 전4권과 같은 방대한 과거 도서 유산의 역사에 대한 정리 작업이 국가적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라고 하겠다. 그와 동시에 기존의 국립도서관(BN)의 기능을 이전시켜 새로운 형태의 국립도서관(BNF)을 만들어 전자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도서관으로 점진적인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라 하겠다.

한편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1992년 당시 부통령인 엘 고어가 정보 슈퍼하이웨이 계획속에 도서관에 관한 계획을 포함시키고 난 뒤 1994년부터 이른바 ‘디지털 도서관(DL)페이지원’ 사업이 시행됨으로써 본격적인 전자도서관 구축이 시작되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중심이 되고 미국 의회도서관이 주관·시행하고 있는 ‘아메리칸 메모리(American Memory)’ 프로젝트(<http://memory.loc.gov/>)는 미래의 전자도서관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현재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건

국 이후의 200년간에 걸친 모든 역사 자료를 전자도서관에 수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북전쟁의 경우에 이 전쟁에 관련된 모든 주제를 정하고서 그와 관련된 모든 지식과 정보를 디지털화 하는 것으로 그러한 작업을 미국 의회도서관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앞서 중국의 역사에서 보았듯이 자기 시대 이전의 모든 학술 문화 정보를 정리·체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전통적인 목록학의 역할이 21세기 판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안내문은 이 프로젝트의 성격을 간명히 보여주고 있다.

“American Memory is an online of over 100 collections of rare and unique items important to America’s heritage. The collections contain more than 7 million primary source documents, photographs, films, and recordings that reflect the collective American memory. They are a treasure trove of unique personal items from another period in time - perhaps old records, letters with exquisite penmanship and arcane language, clothing, keepsakes, or faded photographs. These collections are ‘snapshots’ providing a glimpse into America’s past”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다소 뒤진 감이 없지 않지만 일본의 경우에도 2002년 10월 일본 국회도서관의 관서관(關西館)(www.ndl.go.jp/jp/service/kansai/index.html)을 개관함으로써 국제적인 전자도서관 구축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특히 이 관서 전자

도서관의 경우에는 약 600만 책 규모의 납본도서관을 기본으로 하여 자료의 제공(문헌제공과)과 자료의 보존(수집정리과)이라는 도서관의 전통적 기능을 수행하는 이외에 본격적인 지식정보의 디지털화를 담당하는 ‘전자도서관과’, 시각장애자나 청각장애자 등을 위한 점자도서나 녹음도서의 제작과 제공을 담당하는 ‘도서관 협력과’, 그리고 관서 지역의 장점을 살려 아시아 여러 나라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담당하는 ‘아시아 정보과’등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기구 조직에서도 보듯이 일본 국회도서관 관서분관은 단순한 전자도서관의 차원이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지식 정보 및 복지 사회에서 지역에 기반을 둔 도서관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여야 하는가를 모색하고자 하는 하나의 모범적 사례로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가 도서관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산하에 도서관박물관과로 두고 있다는 데에서 여실히 볼 수 있듯이 아직도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지식 정보의 문제를 일종의 ‘문화정책’쯤으로 생각하는 여유를 부리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다. 앞서 중국의 역사적 사례나 현재 국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각국의 전자도서관 구축 경쟁 양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하여 과거의 학술 문화유산을 정리·체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미래에의 청사진을 그려 나가는 ‘정보 정책’으로서의 도서관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니고서 이를 추진하지 않는 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미래의 지식 정보 사회의 구축은 한갓 헛된 구호로 그치고 말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